

주부와 조리사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비교

서정희 · 홍순명*[†] · 유경희** · 황혜진* · 염수경 · 김현주* · 양정아* · 서영은*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조리과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 Comparison of Housekeeper and Cook

Jeong-Hee Seo, Soon-Myung Hong*[†], Kyeong-Hee Yu**[†], Hye-Jin Hwang*,
Su-Kyung Yeum, Hyun-Ju Kim*, Jeong-Ah Yang* and Young-Eun Seo*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Ulsan 680-749,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Ulsan University, Ulsan 680-749, Korea*

***Dept. of Hotel Cuisine, Ulsan College, Ulsan 680-749,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ehaviors of the two representative groups, housekeepers and cooks in menu-planning, purchasing of ingredients, cooking and disposal of leftover. The sample groups consist of 217 housekeepers and 129 cooks, respectively, residing in the Ulsan Metropolitan City. The cook can be seen as more pro-environmentally in their reflection to the opinion of consumers; considering the seasonal period in menu-planning; immediate handling of them upon getting; using measuring cups and scale for accuracy; arranging in the buffet style in the familial feast; distributing promptly the leftover to the people who need it. On the other hand, the housekeepers act more pro-environmentally in their co-purchasing of materials with neighbors when the size of purchase is big; storing food in the freezer in small package for each meal; avoiding the unnecessary purchasing even when the price of foods is chea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their preparing food more than enough; favoring the minimum size of ingredients; wasting large amount when they trim vegetables; preparing food more than enough.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does not produce an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Nor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at behavior pattern and age, monthly average income, and Engel co-efficient. In conclusion, we found that both the housekeeper and cook, although the most important actor in the whole process of food consumption, are not so consciou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This indicates that the education and campaign for establishing the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re needed.

Key words: housekeeper, cook,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disposal of leftover

서 론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간위주의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로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인 요구나 시장 효율성 뿐 아니라 자신이 소비한 결과가 사회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1). 구매에서 사용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소비행동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사적인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것을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2).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작성부터 음식을 하기 위한 식품의 구매, 조리하는 과정, 남은 식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 음식을 먹는 과정 및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To whom all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가능한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를 다룬 연구(3-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을 조사한 연구(6-16),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17-19), 환경친화적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20-23) 등이 있으며,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소비적인 음식문화로 인하여 가정용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큰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음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식사계획을 하며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 주부와 조리사이다. 주부는 가정에서 매일 매일의 음식을 장만하고 있고, 조리사는 직장에서 전문적으로 조리하는 전문가인 동시에 가정에서도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와 조리사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주부와 조리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부와 조리사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문화를 배격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217명과 조리사 129명을 대상으로, 주부는 질문지의 내용과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통하여 직접 주부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주부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조리사는 조리사 교육시간에 강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조리사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조사는 1999년 5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내용 및 방법

질문지조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서론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측정하는 내용을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을 주는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인 3, 8, 10, 14, 15, 18, 19, 21, 25, 26번 문항은 '그렇지 않다'를 4점, '가끔 그렇다'를 3점, '보통 그렇다'를 2점, '항상 그렇다'를 1점으로 하였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전반적 수준은 26개의 문항 점수를 모두 더하여 구하였다.

월평균 총소득

1년간 가족원이 받는 월급,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모두 합하여 12개월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소득에 대한 식생활비의 지출(엔겔계수)

총식료품비를 총생계비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구성하는 26개의 문항이 주부와 조리사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전반적 수준이 직업, 결혼여부,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연령, 월평균소득 및 엔겔계수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는 10.5%이고 여자가 84.1%를 차지하였다. 이 논문이 주부와 조리사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남자는 모두 조리사이다. 연령은 40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로 32.6%, 50대 이상이 11.1%로 가장 적었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81.1%이고, 미혼이 11.0%로, 미혼의 경우 모두 조리사에 해당한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6.5%로 가장 적었고, 고졸은 53.1%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30.4%이었다.

월평균소득은 80만원 미만이 5.1%로 가장 적었고, 80~120만원과 120~150만원이 15.2%, 150~200만원이 27.7%, 200~300만원이 25.9%, 300~500만원이 7.7%, 500만원 이상이 3.3%를 차지하였다. 소득에 대한 식생활비의 지출비율을 의미하는 엔겔계수는 20% 미만이 16.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Sex	Male	43 (10.5)
	Female	343 (84.1)
Age	20's	44 (11.6)
	30's	123 (32.6)
	40's	169 (44.7)
	≥ 50's	42 (11.1)
Marital status	Married	331 (81.1)
	Unmarried	45 (11.0)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61 (16.5)
	High School	196 (53.1)
	≥ College	112 (30.4)
Occupation	House Wife	217 (58.5)
	Cook	129 (34.8)
	Others	25 (6.8)
Monthly income	< 80 ¹⁾	17 (5.1)
	80~120	51 (15.2)
	120~150	51 (15.2)
	150~200	93 (27.7)
	200~300	87 (25.9)
	300~500	26 (7.7)
	> 500	11 (3.3)
Engel coefficient	< 20%	55 (16.4)
	20~30%	114 (34.0)
	30~40%	106 (31.6)
	40~50%	35 (10.4)
	50~60%	15 (4.5)
	60~70%	6 (1.8)
	> 70%	4 (1.2)

¹⁾10,000 won

20~30% 미만이 34.0%, 30~40% 미만이 31.6%, 40~50% 미만이 10.4%, 50~60% 미만이 4.5%, 60~70% 미만이 1.8%, 70% 이상이 1.2%를 차지하였다.

주부 및 조리사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비교

Table 2에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구성하는 26개 문항별로 주부와 조리사의 평균점수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주부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제철 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한다”,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을 구매한다”, “시장에서 사온 식품은 바로 손질하여 버리는 양을 최소화한다.”,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인다”, “음식재료는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게 된다.”, “음식재료가 싸면 많이 산다”,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한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한다.”, “외식할 때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한다.”, “냉동실에는 1회분씩 적게 포장하여 보관한다.”,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다.” 등은 ‘보통 그렇다’에 해당되었다.

“먹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식단을 작성한다”, “시장에 가기 전에 냉장고의 식품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산다.”, “가능한 적은 포장단위로 구입한다.”, “식품 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한다”,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음식은 먹고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한다.”, “남은 음식은 1회 정도 먹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한다.”, “야채자투리, 배추우거지, 파뿌리, 딸치머리, 복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남은 음식은 즉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도록 남은 정도로 준비한다.” 등은 ‘가끔 그렇다’에 해당되었다.

“저울과 계량컵으로 제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든다.”,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음식은 뷔페식으로 한다.”, “덜어먹는 상차림을 준비한다.”,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온다.” 등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었다.

두 번째, 조리사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제철 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한다”, “시장에 가기 전에 냉장고의 식품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산다.”, “시장에서 사온 식품은 바로 손질하여 버리는 양을 최소화한다.”,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인다”, “음식재료는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게 된다.”, “음식재료가 싸면 많이 산다.”,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한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한다.”, “외식할 때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한다.”,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다.” 등은 ‘보통 그렇다’에 해당되었다.

“먹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식단을 작성한다.”,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을 구매한다”, “가능한 적은 포장 단위로 구입한다”, “식품 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한다.”,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음식은 먹고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한다.”, “남은 음식은 1회 정도 먹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한다.”, “야채자투리, 배추우거지, 파뿌리, 딸치머리, 복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덜어먹는 상차림을 준비한다.”, “냉동실에는 1회분씩 적게 포장하여 보관한다.”, “남은 음식은 즉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도록 남은 정도로 준비한다.” 등은 ‘가끔 그렇다’에 해당되었다.

“식품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 한다.”, “저울과 계량컵으로 제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든다.”,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음식은 뷔페식으로 한다.”,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온다.” 등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부와 조리사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시장에 가기 전에 냉장고의 식품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산다”, “저울과 계량컵으로 제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든다”는 조리사가 주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조리사는 주부에 비해

Table 2. Food preparation and disposal of leftover behavior

Variables	Housekeeper (Mean ± S.D.)	Cook (Mean ± S.D.)	t-value
1. I consider the comments from the others who eats the food that I cook.	2.29 ± 0.77	2.48 ± 0.85	-2.143*
2. I prefer fresh ingredients that grows in the season.	3.01 ± 0.79	3.30 ± 0.72	-3.448**
3. I buy more than enough groceries when I shop	3.01 ± 0.88	2.91 ± 0.78	1.066
4. I check my fridge and make a list before I go grocery shopping.	2.69 ± 1.06	3.47 ± 0.78	-7.263***
5. I try to buy small amount of ingredient.	2.82 ± 1.02	2.59 ± 1.07	1.938
6. I purchase the materials with neighbors when the size is too much.	2.14 ± 0.98	1.83 ± 0.94	2.882**
7. I clean the groceries as soon as I bought to lesson the waste	3.17 ± 0.88	3.42 ± 0.78	-2.652**
8. I throw away a large amount when I trim vegetables.	3.41 ± 0.76	3.41 ± 0.71	-0.048
9. I use measuring cups and scale when I cook	1.44 ± 0.77	1.92 ± 1.03	-4.903***
10. When I host a party, I make more than enough food.	2.84 ± 0.86	2.78 ± 0.86	0.630
11. I prefer buffet style parties in the familial feast.	1.47 ± 0.79	1.66 ± 0.91	-2.001*
12. I try not to throw away food when I eat	3.07 ± 0.86	3.23 ± 0.84	-1.694
13. I make individual packages leftovers at the amount of one meal	2.90 ± 1.01	2.52 ± 1.06	3.271**
14. I tend to buy groceries more than required.	3.36 ± 0.70	3.55 ± 0.65	-2.551*
15. I tend to buy a lot when the price is cheap	3.18 ± 0.78	3.40 ± 0.71	-2.644**
16. I use leftover of vegetables & fishes, meats to make soup.	2.25 ± 1.04	2.36 ± 1.17	-0.934
17. I cook soup and stew at the same time.	3.56 ± 0.68	3.54 ± 0.67	0.143
18. I ask enough broth for stew or soup when I order	3.03 ± 0.84	3.19 ± 0.80	-1.699
19. I make variety of side dishes when I cook.	3.05 ± 0.79	3.12 ± 0.83	-0.741
20. I prefer individual dish when I eat	1.95 ± 1.04	2.15 ± 1.02	-1.727
21. I order enough food when I eat out	3.73 ± 0.54	3.73 ± 0.55	-0.070
22. I bring the doggy bags for leftovers from the restaurant.	1.66 ± 0.92	1.88 ± 1.04	-1.912
23. I store food in the freezer in small package for each meal.	3.07 ± 1.04	2.79 ± 1.09	2.285*
24. I give the leftovers to the people who need them.	2.18 ± 0.96	3.33 ± 0.62	-2.002*
25. I tend to throw away food from the refrigerator	3.33 ± 0.62	3.41 ± 0.62	-1.069
26. I prepare food more than enough	2.87 ± 0.71	2.98 ± 0.80	-1.298

*p<0.05, **p<0.005, ***p<0.001

여 시장에 가기 전에 냉장고의 식품을 먼저 확인한 다음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사거나, 저울과 계량컵으로 재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p<0.001), 계획적인 식품구매와 저울과 계량컵을 사용하는 과학적 조리법을 많이 한다는 면에서 보다 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철 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한다.”, “식품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 한다.”, “시장에서 사온 식품은 바로 손질하여 버리는 양을 최소화한다.”, “남은 음식은 1회 정도 먹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한다.”, “음식 재료가 싸면 많이 산다.” 등도 조리사와 주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조리사가 주부에 비하여 제철 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구매한 식품을 바로 손질하여 버리는 양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보다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과의 공동구매를 더 많이 하고, 음식재료가 싸다고 해서 많이 사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주부가 조리사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식단을 작성한다.”, “가족 행사(돌, 회갑, 집들이) 음식은 뷔페식으로 한다.”, “음식 재료는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된다.”, “냉동실에는 1회 분씩 적게 포장하여 보관한다.”, “남은 음식은 즉시 필요

한 사람에게 준다” 등은 p<0.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리사는 주부에 비하여 먹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더 많고, 가족행사 음식은 뷔페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남은 음식은 즉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부는 조리사에 비하여 음식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더 적고, 냉동실에는 1회분씩 적게 포장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는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을 구입한다.”, “가능한 적은 포장단위로 구입한다.”,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다.”, “가족행사 음식은 먹고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한다.”, “야채 자투리, 배추 우거지, 파뿌리, 떨치머리, 북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한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한다.”, “여러 가지의 반찬을 준비한다.”, “덜어 먹는 상차림을 준비한다.”, “외식할 때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한다.”,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온다.”,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고 남은 정도로 준비한다.” 등은 조리사와 주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관련 요인

Table 3을 보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전반적 수준은 조사대상군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지만(p<0.05)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남자와 미혼은 모두 조리사이므로 주부를 제외한 조리사만을 선택하여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환경친화적 음식 소비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리사가 주부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인 음식소비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보인 직업이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의 의미 있는 독립변수(24)이며, 환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다는 Min과 Lee(2), Min(3)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직업이 조리사로 한정되어 있고, 남자의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Scott와 Willits(26)는 개인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여자가 더 잘하고, 공공행동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남자가 더 강하다고 하였다. Min(3)의 연구에서도 사회지향적 차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지향적 차원은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여부의 경우도 조리사의 일부만이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과 결혼여부가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부와 미혼여성, 조리사 중에서도 미혼인 조리사를 보다 많이 조사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Table 5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Park(1), Min(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다는 Seo(7), Um(25), Lee 등(11), Van Liere & Dunlap(16) 및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행동을 덜 한다는 Min과 Lee(2)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환경지식, 환경교육의 영향 및 소비자 가치지향 등의 변수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수준의 효과가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1).

Table 6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및 엔젤계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젊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다는 Anderson & Cunningham(24),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다는 Vining & Ebreo(19), Min과 Lee(2), Min(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Hallin(27)은 공황을 겪은 세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황이라는 경제적·시대적 상황 때문에 환경친화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생활을 해 온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Seo(7,8), Lee 등(11), Min과 Lee(2), Henion(13), Kinner 등(14), Tucker(15), Van Liere & Dunlap(16), Peters(18), Vining & Ebreo(19)의 보고와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많이 한다는 Constantim와 Hanf(12), Min과 Lee(2)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를 보인다.

Table 3. Comparison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Groups	N	Mean±S.D	T Value
Occupation	House Wife	171	71.2±8.0	-2.4*
	Cook	92	73.8±9.2	
Sex	Male	30	73.7±9.9	1.0
	Female	260	72.0±8.2	
Marital status	Marned	256	72.1±8.5	0.2
	Unmarned	29	71.7±6.8	

*p<0.05

Table 4. Comparison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sex and marital status of cook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F ratio
Sex	Male	74.83±10.25 ¹⁾	0.753
	Female	72.92± 8.59	
Marital status	Marned	74.05± 9.85	1.197
	Unmarned	71.79± 6.91	

¹⁾Values are Mean±S.D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F ratio
Education	≤ Middle school	71.91±8.15 ¹⁾	0.254
	High school	72.45±8.74	
	≥ College	71.67±8.05	

¹⁾Values are Mean±S.D.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age, monthly income, engel coefficient, and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ge	Monthly income	Engel coefficient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ge	-			
Monthly income	-0.04	-		
Engel coefficient	0.02	-0.00	-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0.08	-0.06	-0.06	-

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월평균가계소득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Seo의 연구(1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Seo와 Yeum의 연구(9), 학령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Seo와 Yeum의 연구(10), 여대생의 소비절약행동과 환경보존행동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Noh 등의 연구(6),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의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 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Min(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통한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여 식단작성부터 식품구매, 조리 음식먹기 및 남은 음식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소비의 전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식품소비행동을 총체적으로 보면 조리사는 주부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으로 식품을 소비하고 있었다. 조리사는 먹는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고, 제철 식품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사은 식품을 바로 손질하고, 저울과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들고, 가족행사 음식을 뷔페식으로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준다는 면에서는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별로 볼 때 주부는 식품 포장 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1회 정도 먹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하고, 음식재료가 싸더라도 많이 사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조리사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 구입, 가능한 적은 포장단위로 구입,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음, 가족행사 음식은 먹고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 야채 자투리, 배추 우거지,

파뿌리, 멸치머리, 복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 여러 가지의 반찬 준비, 덜어 먹는 상차림 준비, 외식할 때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 외식할 때 남은 음식 싸움,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음, 음식은 부족하지 않고 남은 정도로 준비 등은 조리사와 주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성별, 결혼여부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와 미혼은 모두 조리사이므로 주부를 제외한 조리사만을 선택하여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연령, 월평균소득 및 앵겔계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사와 주부는 음식을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조리사와 주부 모두 전 반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합리적인 식생활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부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과 반상회의 홍보자료에 반드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리사의 경우 정기교육과정에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함께 함으로써 외식이나 단체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 헌

1. Park, W.A.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of married women.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2. Min, H.S. and Lee, K.C : Supportability for environmental conscious consumer behavior environment protection polici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 107-121 (1996)
3. Min, H.S : Consumers'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4. Shim, M.Y. : A Study on the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environmental problem: The consistency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1999)
5. Yu, D.R. and Shim, M.Y. '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s toward environmental problem. *J. Korean Home*

- Management Association*, 16, 123-140 (1998)
6. Noh, C Y, Shin, H.S. and Cho, H.J. 'Consumers' concern and behavior about to environmental problem.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 49-62 (1991)
 7. Seo, J.H. 'A study on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behavior.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8. Seo, J.H.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skill and related variables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 93-101 (1991)
 9. Seo, J.H and Yeum, S.K. : Teachers'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hild *J Consumption Culture*, 1, 67-92 (1998)
 10. Seo, J.H. and Yeum, S.K. 'Mothers'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hild *J. Consumer Studies*, 10, 17-40 (1999)
 11. Lee, S.S., Lee, H.Y. and Rhu, M.H. : Consumer competenc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J Consumer studies*, 4, 73-96 (1993)
 12. Constantini, E. and Hanf, K. : Environmental concern at lake Tahoe: A Study of elite perceptions, backgrounds and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4, 209-242 (1972)
 13. Henion, K E : The effect of ecologically relevant information on detergent sale *J Marketing Research*, 9, 10-14 (1972)
 14. Kinnear, T C., Taylor, J.R. and Ahmed, S.A. . The effect of ecological concern on brand perceptions. *J. Marketing Research*, 38, 20-34 (1974)
 15. Tucker, L.R Jr.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role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J. Consumer Affairs*, 14, 326-340 (1980)
 16. Van Liere, K.D. and Dunlap, R.E. .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pract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181-197 (1980)
 17. Seo, J.H.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 27-40 (1997)
 18. Peters, W.H. : Who cooperates in voluntary recycling efforts. *Proceedings of the 36th combined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74)
 19. Vining, J and Ebreo, A : What makes a recycler? :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 (1990)
 20. Seo, J H and Lee, E.S. . Economic distress and pro-environmental clothes consump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 Consumption Culture*, 2, 159-178 (1999)
 21. Lee, C.H. Environmentally concerned management behavior and recycle of clothes. *M.S thesis*, Jungang University (1995)
 22. Shim, S. '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 Clothing disposition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 33-48 (1995)
 23. Stephens, S.H. ' Attitude toward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nd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s to clothing acquisition and discar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85)
 24. Anderson, W.T and Cunningham, W.H. .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J. Marketing*, 36, 23-28 (1972)
 25. Um, H.J. : Wife's management behavior in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ion.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26. Scott, D. and Willits, F K :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26, 239-260 (1989)
 27. Hallin, P.O. . Environmental concern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Foley, A small town in Minnesota. *Environment and Behavior*, 27, 558-578 (1995)

(2000년 7월 22일 접수)